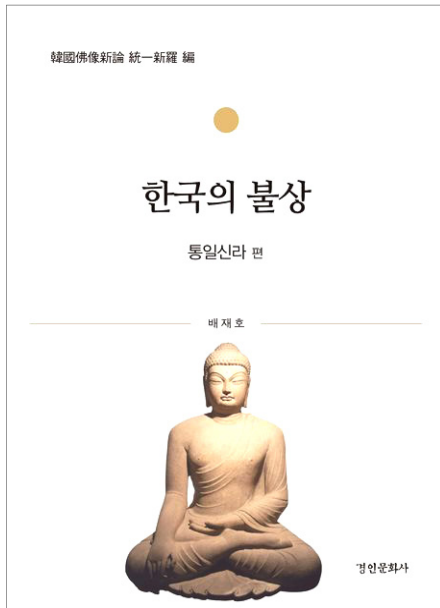


書評

배재호 지음,
『한국의 불상 통일신라편』
(경인문화사, 2024)

한재원*



배재호 교수가 집필한 『한국의 불상 통일신라편』(2024)은 2023년에 출간한 『한국의 불상 고구려·백제·신라편』에 이어지는 연작 학술서로서,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사의 통사적 서술을 완성하는 중요한 성과물이다. 저자는 중국 불상과 석굴사원에 관한 다양한 번역서와 단행본을 저술한 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 불교미술에 관한 책을 잇달아 내며 꾸준한 학술적 성취를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불상의 양식 변화뿐만 아니라, 불교사와 사상적 배경을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장의 제목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2장에서 신라상감(新羅像龕)과 군위삼존석굴을 중심으로 신라의 구법승(求法僧)

이 불상 조성의 역할에 기여한 역할을 조명하고, 3장에서는 불비상(佛碑像)과 백제계 유민의 아미타정토신앙을 연결하여 통일신라 불교의 신앙적 배경을 분석한다. 4장과 5장에서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는 아미타불상과 신라 왕실, 감산사 불상과 조성자인 김지성의 교학적 기반을 조명한다. 6장에서는 경주 남산 칠불암 존상과 신선암 미륵보살상을 통해 당시 미륵신앙과 법상종의 관계를 다룬다.

7장과 8장은 사방불상과 약사불상을 다루며, 불탑에 사방정도 세계관이 구현된 양상과, 약사신앙이 치병·국난 극복의 신앙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점을 분석한다. 9장과 10장에서는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 불상을 다루며, 화엄사상의 미타정도세계와 연화장세계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11장은 9세기 철불 조성에 주목하면서 지방 호족과 재지 세력의 신앙적·정치적 역할을 강조한다. 12장과 13장에서는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을 말법 사상과 왕실의 정토신앙과 연결하여 살피고, 마지막 14장에서는 당(唐)과 일본 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통일신라 불상의 특징을 좀더 입체적으로 조망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 불교조각사에 관한 개설서는 그 수가 많지 않고, 특정 시대나 지역, 도상에 대한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 흐름을 아우르는 통사를 서술하기란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다. 불상을 연구하려면 지역·시대·유형별 전문 지식과 함께, 이를 아울러 통시적으로 꿰뚫어 살필 수 있는 견문과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연작은 바로 이 두 가지 면모를 모두 지향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자가 각 장에 관계되는 다양한 학설들을 엄밀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견해도 분명히 개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좌상과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연대를 8세기 후반으로 보고, 석불사의 불교 존상 또한 일부 개비(改備)된 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창건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논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넘기지 않으려는 저자의 학문적 성실성을 보여준다. 한편, 저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각주로 꼼꼼히 인용하는데,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문헌이라도 ‘앞의 논문’이나 ‘위의 책’ 같은 간략한 표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매번 완전한 서지 사항을 명시하여, 독자들이 참고문헌을 찾느라 책을 앞뒤로 뒤적이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지난 2년간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저자는 한국 불상의 사상적 배경과 미술사적 의의를 폭넓게 조망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하며, 저자의 이러한 ‘수행’에 가까운 글쓰기는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임을 믿는다.